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

백용기 (강남대학교 교수 / 역사신학)

I. 들어가는 말

1. 교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바이마르 공화국
2.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약진
3. 독일 개신교의 보수적 민족적인 성격
4. 기독교에 대한 나치주의 입장
5.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투쟁
 - 1) 교회 정치적 환경
 - 2) 독일적 그리스도인 출현
 - 3)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교회선거 투쟁
6. 교회에 대한 히틀러의 입장

II.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05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ABSTRACT** •

The various thoughts, ideologies and politic actions reigned supreme in the Weimar Republic. No party held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on the other hand the extreme politic parties have been on a collision.

The German Protestant, which was founded on civil class, didn't maintain the pluralism of the Weimar Republic. In the end of this republic it was drown more and more in the national and demagogue National Socialism

In the article I study the aspect between the Protestant and the National Socialism, especially centering around the actions of the German Christian, who kept guard on the National Socialist in a Church.

I persue the Protestant's standpoint against the Weimar Republic, its conservative and national Character and election struggles in a church and so on.

Keywords: Nationalsocialism, German Christian, church, State, Nation, race, Christianity, election

I. 들어가는 말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 및 정치 활동이 난무한 시대였다. 또한 한 정당의 절대적인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면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정치활동, 즉 전투적인 나치주의자들과 공산당의 활동이 충돌을 일으키는 시대였다.

시민계층에 바탕을 둔 독일 개신교는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바이마르 공화국을 결코 지지할 수 없었으며, 공화국 말기에는 더욱 민족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나치주의에 기울어져 갔다. 이들은 독일 제3제국을 탄생시키는데 적지 않는 공헌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개신교와 독일 나치주의와의 관계를, 특히 나치주의의 교회 내의 전위기관인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과 이들의 보수적이고 민족적인 성격,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정권 장악에 이르는 활동과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입장,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교회선거에서의 투쟁 그리고 교회에 대한 히틀러의 입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바이마르 공화국

제1차 세계 대전

패망의 토양 위에 시작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시민 중산층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었다. 1917년 해군 함정에서의 반란은 혁명의 시작이었다. 키일 지역에서 시작된 반란은 농민, 노동자들로 연결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독일 제국의 넓은 부분들이 노동자 평의회, 농민 평

의회, 군인 평의회 등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마침내 1918년 11월 9일 황제 빌헬름 2세는 퇴위를 선언하였으며 사회민주당 당수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가 권력을 이어 받았다.¹⁾ 1918년 11월에서 12월에 정당들이 개조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형성되었다. 국민회의(Nationalversammlung) 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은 37,9%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가톨릭의 중앙당(Zentrumspartei)과 자유주의자들인 독일민주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다.²⁾

군주제와 영주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가톨릭과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간에 정치적 차원에서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³⁾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의 군주에 대해서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종교개혁 이후부터 루터의 세속권위(weltliche Obrigkeit)에 대한 존중은 군주와 교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였으며, 거룩한 강단과 세속 권력의 왕관의 결합은 독일 개신교의 특징적인 성격이 되었다.⁴⁾

이러한 독일 개신교에게 11월 혁명은 “민족의 불행”이었다. 이 혁명은 이제까지의 모든 전통을 급격하게 단절시켰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몰락의 징후였다. 황제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는 것을 본 개신교도들은 황제에 대한 동정을 표하는 수많은 집회를 열었으며, 많은 교회 신문들이 황제의 행운을 빌었다.⁵⁾

1919년 1월 말 국가법학자인 프로이스(Hugo Preuss)가 미래의 제국

1) Kurt Nowak, *Evangelische Kirche und Weimarer Republik*, Goettingen 1988, S.17.

2) Nowak,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Deutschlands*, Muenchen 1995, S.206.

3) Jean F. Neurohr, *Der Mythos vom Dritten Reich*, Stuttgart 1957, S.161.

4) Nowak, *Evangelische Kirche und Weimarer Republik*, Goettingen 1988, S.38.

5) Ibid..

헌법을 초안하였는데, 이제 종교공동체의 소속을 밝히는 문제는 더 이상 의무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종교 공동체도 국가에 의해서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되게 되었다. 이미 1918년 11월 9일에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주에서 사회민주당의 문화담당 정치가인 종교적 자유사상가 호프만(Adolf Hoffmann)이 국가와 교회의 급진적인 분리를 제안하였다. 그는 교회의 탈국가화(Entstaatlichung der Kirche)와 국가의 탈교회화(Entkirchlichung des Staates)의 분리정책을 위해서 관공서 자리를 없애야 했다.⁶⁾

이제 교회의 걱정은 계속되었다. 아직도 군주국의 깊은 평화로움 속에서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산업화된 대중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부서지지 않는 통합기구로서의 종교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의 과정에 교회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국가와 교회의 조직적인 분리는 없었다. 실질적인 문제는 종교와 삶의 관련성의 자리 메김으로써의 교회가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⁷⁾

1919년 첫 달에 개신교 행동집단은 국민회의 청원운동을 조직하였으며, 기독교 부모들은 종교수업의 유지와 군목의 보장을 주장하였다. 교회의 직원들은 기독교적인 공휴일과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이 통과된 후에 사회주의자들은 사민당의 엘푸르트 강령(Erfurter Programm)의 ‘종교는 사적인 문제(Religion ist Privatsache)이다’라는 사회주의적인 견해와 국가 안에 교회의 관현적(obrigkeitlich)인 입장을 유지하는 견해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과 문화투쟁적인 분위기 없이 균형을 발견하였다.⁸⁾

6) Nowak,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Deutschlands, S.207.

7) Ibid.

8) Ibid., S.209.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회는 종교적 사회단체라는 표어로 나타났으며, 교회 정치적 조직을 “어떤 국가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137조, 1항)는 문장으로 표시하였다. 이 진술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교회의 관행이나 이익들을 고려하였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보호되었으며 군에서의 종교 및 군목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의무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국가로부터의 엄격한 분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회의에서 사민당 대변인인 메어펠드(Johann Meerfeld)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우나, 국가는 교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표현하였다.⁹⁾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교회는 그렇게 특권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들의 만족은 대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개신교들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기독교의 의미가 국가와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 고유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에 있었다.¹⁰⁾

혁명 이후에 국가교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프로이센 법에 의해서 교회 탈퇴가 쉬워져서 바이마르 공화국 기간 내에 교회를 탈퇴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1919년에서 1932년의 평균 탈퇴 숫자는 평균 180명 선이었다.¹¹⁾ 교회 탈퇴 운동은 종교 자유사상가 중심인데, 시민적-자유주의적인 자연연구가 및 출판가들의 영역에서 성장하였다. 노동운동은 자유사상가의 프로그램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 자유사상가들은 교회 탈퇴를 선동하였다.¹²⁾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교적이지도 않고 반종교적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날카로운 대립의 시대에 살았다. 교회 탈퇴운동은 좌파 정당인 독일공

9) Ibid., S.210.

10) Ibid., S.211.

11) Jochen-Christopf Kaiser, *Arbeiterbewegung und organisierte Religionskritik*, Stuttgart 1981, S.352; Neurohr, *ibid.*, S.161.

12) Nowak,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Deutschlands*, S.230.

산당(KPD)과 독립사민당(USPD)으로부터 정치적인 후원을 얻었다. 그들은 교회를 반동자들의 피난처로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탈퇴를 계급 투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진보와 계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다.¹³⁾

2.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약진

히틀러는 1919년에 독일노동당(Deutsche Arbeiterpartei)에 가입하였다. 이 정당은 그 다음 해에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로 개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당원은 64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21년부터 히틀러가 이 정당을 공식적으로 떠맡았다. 돌격대(Sturmabteilung: SA)가 조직되었으며, 당원 수는 그전 해에 비해 두 배에 이르렀다.¹⁴⁾

1923년 루덴도르프와 히틀러는 쿠데타(Ludendorff-Hitler-Putsch)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감금되었다가 1924년 12월에 석방되었다. 독일 민족사회 노동당의 활동은 1925년 2월까지 금지되었으나, 곧 이들의 세력은 바이에른을 넘어 1926년에는 거의 50,000명에 달하였으며, 1927년에는 70,000명이 넘었다.¹⁵⁾

1930년 9월 14일 제국의회 선거에서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은 107명의 당원을 당선시켜 명백히 승리하였다. 이 정당은 전체 유권자의 18.3%의 득표로 제국 의회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정당이 되었다. 1932년에 제국 대통령인 힌덴부르크의 의회 해산 후 구성된 제국의회 의장에 괴링(Hermann Goering)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곧 의회가 다시 해산되어

13) Gerda Soecknick, *Religioeser Sozialismus der neueren Zeit*, Jena 1926, S.44-46.
 14) Helga Grebing, *Der Nationalismus-Ursprung und Wesen*, Muenchen 1959, S.55-56.
 15) Ernst Deuerlein, *Der Aufstieg der NSDAP in Augenzeugenberichten*, Duesseldorf 1968, S.287-291.

실시된 1932년 11월 제국 의회 선거에서 이 정당은 득표수가 전보다 감소했지만 33.6%로 196석을 획득하여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남았다.¹⁶⁾

이 정당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은퇴자, 중, 수규모의 농부, 공무원, 하급 장교들, 의용병들 중에서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낮았다.¹⁷⁾

1933년 1월 30일은 독일의 역사에서 나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날이다. 제국 대통령인 힌덴부르크는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지도자인 히틀러를 제국의 수상에 지명하였다. 이 새로운 정부에는 9명의 보수주의자들 외에 나치주의 정당은 3명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이들 소수의 인원으로는 정권을 장악하기에는 세력이 너무 약하였다.

베를린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군중들은 거리에 모여 환호하였다. 이들은 히틀러가 수상이 된 것과 민족혁명의 승리를 경제적 비참함과 육백만의 실업자, 살인적인 볼셰비키주의자들, 거룩하지 못한 유대주의와 경제, 무역, 예술, 정치에서의 그들의 영향, 그리고 무능력한 민주주의, 민족의 존엄성을 침략하는 외부의 적, 압박에서 해방된 민족의 감정, 민족의 굴기 등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이제 전쟁배상금이 끝나고, 군사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며,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견해, 11월 혁명의 저주, 바이마르 공화국 및 국제주의 거절, 정치적 표상 및 역사적 현상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화로의 미화 등이 히틀러의 정권 장악에 문을 열어 주었다.

히틀러와 당원들은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힘의 투표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민족의 각성이 히스테리적이고 의식적인 군중에

16) 이 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은 20.43%로 121석, 독일공산당(KPD)은 16.7%로 100석을 얻었다. In: Voelkischer Beobachter, 8. November 1932.

17) Peter Manstein, *Die Mitglieder und Waehler der NSDAP 1919-1933*, Frankfurt a.M. 1990, S.274.

의해서 주창되고 이들에 의해서 나치주의자가 권력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보수적인 권력, 즉 제국 대통령궁이나 정부부처의 관료, 경제계 등의 보수주의자들에 둘러 쌓여있어 아직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대통령 자신도 보수주의자들인 자신의 친구에 귀를 기울이지 나치주의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933년 말의 정치적 상황은 특히 정치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민주적인 적들을 제거하여, 권력을 거의 장악하였다. 또한 보수적인 적들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부터 실제로 권력을 빼앗았으며, 무엇보다 예외 없는 선전이 국민의 대다수를 얻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때까지 독일민족의 물질적 토대는 약간 나아졌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주의자들은 정치적 성향(Mentalitaet)을 얻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이제 군중들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테러를 감행한 집단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영도자(Fuehrer)의 연설에 대한 그리고 독일의 국제연명의 탈퇴에 대해 환호하였으며, 1933년 내내 공개적으로 테러와 현혹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 민족의 다수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3. 독일 개신교의 보수적 민족적인 성격

피히테(Fichte)와 헤겔(Hegel)에 의하면 독일인은 기독교를 순수하게 다시 세워야 하는 신의 섭리(Vorsehung)에 의해서 선별된 민족이다. 이들의 후손들, 특히 20세기의 후계자들에게는 독일적 북방적(Deutsch-nordisch)인 인종의 파송은 유럽 영혼들을 유대적-기독교적 독극물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괴레스(Goerres)와 쉴레겔(Schlegel)에게는 이방인들과 이단들에게 대항하여 기독교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 황제의 특권으로 여겨졌다.¹⁸⁾

히틀러의 정권 탄생에 이르는 시기에 독일 개신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인상을 남겼으며 행동하였는가? 순응하였는가? 혹은 저항하였는가? 이 시기의 독일 개신교는 신학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1932년에서 1933년까지의 독일 개신교를 다섯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가장 우익으로는 독일적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나치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교회의 획일화(Gleichschaltung)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흐름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나치주의를 지지하나, 교회의 불가침을 주장한 그룹이다. 세 번째 집단은 보수주의자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독일민족적인 정서와 사고구조에서는 나치주의에 다소간 일치하나, 교회의 독립과 중립을 주장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정치적 이유로 나치주의를 거절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종교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이유 때문에 나치주의를 거부한 그룹인데 근본주의적인(radikal) 루터주의자들과 몇 명의 변증신학 옹호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보수주의자들이 중간집단(Mittelgruppe)을 압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상당히 상대화된 반면에, 주변부 집단은 양적으로 무척 약화되었다.

보수주의에 대한 친화력은 독일 개신교의 오랜 전통이다. 오랜 시기 동안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결합이 원인의 일부다. 독일목사의 70-80%가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²⁰⁾ 이러한 독일 목사층의 성격

18) Neurohr, *ibid.*, S.160.

19) Guenther van Norden, *Der deutsche Protestantismus im Jahr der nationalistischen Machtergreifung*, Guetersloh 1979, S.9.

20) Karl-Wilhelm Dahm, *Pfarrer und Politik, Soziale Position und politische Mentalitaet des deutschen evangelischen Pfarrerstandes zwischen 1918 und 1933*, Koeln 1965, S.148.

은 독일 시민층의 다수가 갖는 보수적 정치적 성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독일 개신교는 시민적인 가치에 기초한 개신교였다. 그래서 민족혁명, 민족고양(national Erhebung)에 대한 독일 기독교의 긍정적인 자세를 이해하게 된다.

이제 1933년 히틀러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독일 개신교의 이러한 성격이 변화되었다. 독일 백성(Volk)의 정신적 성향이 획일화 되어감에 따라서 개신교 안에서도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치되어 갔다. 1933년 말에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다양성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한 방향으로 일치되어 갔다.

4. 기독교에 대한 나치주의 입장

독일에서 나치주의자와 교회의 만남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때가 아니다. 이미 바이마르 말기에 교회와 기독교는 민족주의(voelkisch) 운동과 나치주의를 만났다. 특히 193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한 이후에는 그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었다.²¹⁾

1926년 이후의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페더²²⁾는 24조항의 <적극적 기독교>에 대한 그의 1931년 해석을 변경해야

21) “2.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약진“을 참조.

22) 1920년 2월 24일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뮌헨의 한 대중 집회에서 페더(Gottfried Feder)는 25개의 정당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1926년 5월 22일 전당대회는 이 프로그램의 원리와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추인하였다. 이 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24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단 게르만 종족의 관습과 도덕 감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당은 신앙고백의 차이없이 적극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주장한다. 이 정당은 유대적인 유물주의 정신에 투쟁하고 공익은 사이에 앞선다는 원칙을 갖는다. 25 조항은 다음과 같다: 종교적인 신앙고백의 자유는 국가 정치적 이해 아래 놓여 있다. 참조. Gottfried Feder *Das Programm des NSDAP und seine weltanschaulichen Grundgedanken*, 25-40. Aufl., Muenchen 1931, S.19-31.

했다. 그는 1929년에 혈통(Blut)과 신앙(Glauben) 그리고 국가(Staat)의 3위1체(Dreieinigkeit)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의 북방 사상의 의식(Bewusstsein des nordischen Gedankens)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31년 판에서는 정당 그 자체가 적극적 기독교의 토대 위에 있다고 스스로를 제한하였다. 독일 백성이 장차 자신의 신인식과 신경함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양식(Form)을 발견해야 할 것인지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은 여하튼 게르만 종족의 토착 종교인 보탄제의(Wotanskult)의 기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변경된 해석은 교회의 의구심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²³⁾

이 보다 앞서 1930년 당시 제국조직지도자(Reichsorganisationsleiter)인 스트라쎈(Gregor Strasser)는 제국 의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어떤 교파를 사주하거나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독일적인 문화의 새로움에 신실하게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이 독일문화 없이는 교회 역시 메마를 것이며 내용이 없을 것이다.”²⁴⁾

괴벨스(Joseph Goebbels) 역시 말하기를 개신교들의 기톨릭 공격을 반대하면서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은 교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을 위해서 투쟁하며, 신학자들은 그들의 적대적인 투쟁으로 나치주의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⁵⁾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은 유물론자들과 무신론자에 대한 투쟁이나 행동의 기독교(Christentum der Tat) 혹은 적극적 기독교로 사칭되었다.²⁶⁾

1930년대의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지도부는 기독교와 어떤 정치

23) Kurt Meier, *Kreuz und Hakenkreuz*, Muenchen(dtv wissenschaft 1992), S.11.

24) Max Buchner(Hg.), im Nachwort zu Eberhard Schlund, "Christentum, Kirche und Nationalismus", in: Gelbe Hefte 2(1932), S.129.

25) Meier, *Kirchenkampf*, Bd.I, Goettingen 1976, S.52.

26) Hans Buchheim, *Glaubenskrise im Dritten Reich*, Stuttgart 1953, S.64.

적 논쟁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적”이라는 불분명한 슬로건을 가지고 선동적으로 이용하였다. 신문이나 모임에서 가톨릭 중앙당의 정치가들에 대한 비방은 자신들의 “신실한 기독교”라는 문장과 대조를 이룬다. 그들은 맑스주의와 정치적 성직자, 붉은 살인자와 유다, 그리고 치욕의 평화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다.²⁷⁾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는 1930년 2월에 출판된 <20세기 신화>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정치-세계관적인 상을 제시하였다.²⁸⁾ 그에게는 종족의 가치의식과 종족의 힘에 대한 각성, 여기로부터 문화와 경제, 국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²⁹⁾ 그의 역사해석의 특징은 이러한 종족의 역사를 관찰하는 것이며, 종족-민족을 각성시키는 역사는 영웅, 신 그리고 시인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역사는 종족과 종족의 투쟁의 역사이며, 아리안-게르만족이 최후의 승리자다.³⁰⁾

그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개신교에 대하여, 게르만족의 자유의지와 민족 고유의 삶, 개인의 양심을 재건하여 여기에 방어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지배하고자 하나, 이것은 로마 종교의 수준 낮은 것이다. 그러나 게르만족은 명예를 통해서 자유롭게 살고 죽고자 하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민족의 개념에 종속되어야 한다. 혈통의 신화라는 이 새로운 신앙은 피와 함께 인간의 신적인 본질을 옹호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제국은 독일의 순수성과 유대의 악마 사이에 궁극적인 투쟁이 일어날 것이며, 다가오는 독일의 민족교회(Volkskirche)는 자유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 구약은 게르만족을 정신

27) Ibid., S.65.

28) Alfred Rosenberg, *Der Mythos des 20. Jahrhunderts*, 17-20. Aufl. Muenchen 1934.

29) Walter Grundmann, *Gott und Nation*, Berlin 1933, S.70.

30) Rosenberg, Ibid., S.678.

적으로 유대화하기 때문에 없애야 하며, 신약에서는 미신적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동정적이고 자기 비하인 겸손으로서의 예수상은 독일의 새로운 운동에는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고난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상은 게르만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독일 개신교의 최대 과제는 민족신화에서 북방유럽의 종족정신을 발견하는 것이다.³¹⁾

이 저서의 발간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게 나치주의와 강력하게 논쟁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정당이 기독교에 논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나치주의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진지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은 이 논쟁에 빠져들기를 피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였기에 이 책을 로젠베르크의 개인의견이라고 처리하였다.³²⁾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정치적 상황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정책의 변화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당의 방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³³⁾

그래서 제3제국 첫 해는 로젠베르크와의 공개적인 비판이 가능하였으며, 비판의 주된 내용은 순수한 성서적 기독교가 아주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레(Walter Darre)의 저서 ‘혈통과 땅의 새로운 귀족’(Neuadel aus Blut und Boden)에서는 기독교가 게르만 귀족의 도덕적 토대를 박탈했다고 경멸하였다.³⁴⁾

1930년 4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로젠베르크가 출판한 나치주의의 월간잡지(Nationalsozialistische Monatshefte)에는 나치주의와 기독교에 관하여 단 하나의 논문도 나타나지 않는다.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지도부는 이 주제에 관하여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단지 이 기간에 교회에

31) Ibid., S.599-610.

32) Buchheim, *ibid.*, S.63-64.

33) Meier, *Kreuz und Hakenkreuz*, Muenchen 1992, S.12.

34) Ibid., S.13.

대한 정당과의 관계가 단 한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든 나치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소속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논문은“나치주의와 독일적 교회”(Nationalsozialismus und Deutschkirche)이다.³⁵⁾

프로이센 주의회가 1931년 5월 11일(6월말 발효)에 개신교 주교회와 자유국가 프로이센 주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교섭단체 조차 거절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적극적인 토대에 대한 고백>으로의 기능변화이다.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교회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짧은 시기에 승리한 나치주의 국가가 교회와의 관계를 법제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이 교회에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한 이러한 노력은 프로이센 주의회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교섭단체의 지도자인 쿠베(Wilhelm Kube)가 개신교 영역 안에서 조직적인 보호기구(Schuetzenhilfe)를 찾고자 했을 때 지나치게 되었다. 이들은 프로이센 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이 1930년 제국의회 선거에 107명을 당선시킬 때 프로이센 주에서는 6석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2년 4월 프로이센 주의회 선거에서 이들은 전체 423석의 자리에서 162석을 얻어 가장 강력한 정당이 되었다.³⁶⁾

5.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투쟁

1) 교회 정치적 환경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와 개신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인 이단자(Haeretiker)이며, 민족주의적 종파주의자(voelkische

35) Buchheim, *ibid.*, S.66.

36) Meier, *Kreuz und Hakenkreuz*, S.14-15.

Sektierer)다. 이들은 나치주의 정당에의 주도 아래 합류되거나 촉진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흐름, 연맹, 단체들로부터 나오며, 이들의 공동적인 민족주의적 이념과 자유로운 신앙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교회로부터 벗어난 이단적인 관련성에는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들이 운동으로 결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들의 실존은 나치주의가 교회 안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항한 투쟁 덕분이다. 이 운동은 경쟁으로 분열되어 1933년 가을에는 오히려 히틀러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은 애국적(vaterlaendisch)인 성향과 민족주의적(voelkisch)인 부흥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병리적(pathologisch)인 불만족의 상태에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열망을 가지고 독일적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들었다.³⁷⁾

자발적으로 그리고 애국적인지만 부분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그리고 목회적으로 열등의식에 괴로운 신앙인들이, 이제 시대의 몰락에 대처하여 기독교를 바이마르 이전처럼 국가와 결합시킬 수 있으며, 교회가 제3제국 안에서도 역시 국민의 지도와 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망상하였다.

민족주의적인 부흥을 꿈꾸는 자들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며, 나치주의적인 것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다. 이들은 기독교가 민족주의적인 뿌리로만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나치주의적으로 여겨졌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이 불만족주의자들은 교회가 백성의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무조건적으로 기독교인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치주의적인 신앙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7) Buchheim, *ibid.*, S.41.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정치적 투쟁을 위해서 백성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되어야한다.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자들과 함께 독일적 그리스도적인 운동의 위험하고 혁명적인 핵심인, 그리스도의 돌격대(SA Christi: 이들의 지도자 호센펠더가 표현하였다)를 형성하였다.³⁸⁾

2) 독일적 그리스도인 출현

독일적 그리스도인 운동(Kirchenbewegung Deutsche Christen)은 1927년 튀링엔 주에서 레플러(Siegfried Leffler) 목사와 로이토이저(Julius Leutheuser) 목사를 중심으로 나치주의를 교회에 결합시키며, 독일적 그리스도인 민족교회(Deutsche Christliche Nationalkirche)를 세우려는 목적 아래 결성되었다. 그들은 히틀러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서 외에 나치주의 혁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선포하고자 하였다.³⁹⁾

그리스도교적 독일운동(Christlich-Deutsche Bewegung)은 재향군인회와 독일민족국민당(Deutsche Nationale Volkspartei)을 중심으로 맑스주의와 평화주의를 반대하고, 적극적 기독교를 위해서, 연약한 교회 지도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목사 빌름(W. Willm)에 의해 창설된 전투적인 조직이었다. 특히 이들은 민족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⁴⁰⁾

교회는 선동의 무대로 이용되었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거대한 개신교의 제국적인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단지 목사 마이어-아우리히(Heinrich Meyer-Aurich)의 지도 아래 "나치주의 개신교 목사 공동연구 모임"(Arbeitsgemeinschaft nationalsozialistischer evangelischer Pfarrer)만이 있을 뿐이었다.

38) Ibid., S.42.

39) Meier, *Die Deutsche Christen*, Halle 1965, S.2-17.

40) Friedrich Wieneke, *Deutsche Theologie im Umriss*, Soldin 1933, S.31.

그러나 1931년에 여러 주 교회에서 나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회 정당을 결성하였다. 보수적인 교회 정당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민족 고백연맹”(Christlich-Nationaler Bekennerbund)이 1931년 초에 나사우 주 교회총회 선거에서 전체 39석 가운데 9석을 얻었다. 1931년 가을에 이어진 바덴 주 선거에서 “적극적 기독교와 독일적 민족성을 위한 기독교 연합”(Kirchliche Vereinigung fuer positives Christentum und deutsches Volkstum)은 전체 57석 가운데 13석을 얻었다. 바덴 주와 같은 시기에 열린 튀링엔 주의 알텐부르크 교회 선거에서 레플러와 로이토이저의 ‘독일적 그리스도인’은 5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자유주의자들과 종교사회주의자들로부터 일어났다.⁴¹⁾

주 교회 선거에서 나치주의자들의 선동은 많은 걱정과 다소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목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가와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적인 정당원들의 유니폼과 깃발을 허락해야하는가이다.⁴²⁾

그리스도교적-독일적 운동에 속한 메크렌부르크(Mecklenburg) 주 교회 감독인 렌토르프(D. Rendtorff)는 국내정치적 투쟁의 필연성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투쟁이 양심과 결합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메크렌부르크 신문의 기사에서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나치주의자들의 의사표시를 적극적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운동을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

41) Buchheim, *ibid.*, S.67.

42) 이러한 물음은 예를 들어 튀링엔, 슈레스비-홀스타인, 바덴, 팔츠 그리고 헛센 주의 교회 정부 규정에서 다루어졌다. 참조. *Ibid.*, S.67.

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고백에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Volk)과 민족성(Volkstum)의 열정적인 긍정은 개신교 교회의 관심과 함께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이 민족과 종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지는 생명의 문제다.⁴³⁾

또한 뷔르템베르크 주의 개신교 교회최고관리위원회(Evangelische Oberkirchenrat)는 1931년 11월 10일 “정치적 단체의 유니폼을 입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칙명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예배는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하는 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개신교의 관점에서 공고되지도 않는다.”⁴⁴⁾

3)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교회선거 투쟁

구프로이센 연합(Altpreussischen Union)의 교회 정부는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을 거절하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두었다. 프로이센의 교회 헌법은 1931년 5월 나치주의자들의 뜻에 반대하여 의회에서 채택되었다.⁴⁵⁾ 그러나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원내대표인 쿠베(Wilhelm Kube)는 1932년 가을에 있을 구프로이센 연합의 교회 선거를 프로이센에서 자기 정당을 확장할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선거에 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후보들이 정치적 손실을 만회하거나 프로이센 교회 정부에 보복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1931년 1월에 쿠베는 선동을 시작하였으며, 독

43) Ibid., S.68.

44) *Materialdienst*, herausgegeben von der Landesgeschaeftsselle des evangelischen Volksbundes fuer Wurttemberg, Stuttgart 1932, 5줄, in: Buchheim, *ibid.*, S.68에서 재인용.

45) Ibid., S.71.

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의 기관지 “민족의 관찰자”(Voelkische Beobachter)에 전 독일을 자극시키는 글을 기고하였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와 스페인에서 맑스주의자들이 교회와 수도원을 불태우고 폭파하는 이때에 프로이센의 교회 관청은 적극적인 신앙인인 돌격대 동료들과 철모단(Stalhelm: 재향군인회)을 이 조직들이 기독교적이고 독일적인 문화유산을 그들의 깃발과 명예의 표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출현하고 하는데 -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한다.

히틀러가 독일 백성을 무신론자들과 맑스주의자에 대항하는 투쟁을 호소할 때에 최고의 봉급을 받는 총감독인 비츠(Dr. Vits)는 그는 자기로서는 독일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아직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서 - 나치주의자들이 장난칠 시절에 있다고 한다..."⁴⁶⁾

1932년 초 쿠베는 교회의 투쟁에 어떤 조직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준비 없이 있지는 않았다. 1930년에 이미 그는 두 명의 목사에게,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교회 내에 간직하도록 하고 개신교 나치주의자들과 결성을 준비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정당 소속이었고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⁴⁷⁾

에케르트(Karl Eckert)는 노이마크(Neumark)의 슈바헨발더(Schwachenwalde) 지역 목사이며 1932년 4월에 프로이센 주 선거에 당선되었다. 다른 한 사람 비네케(Dr. Friedrich Wieneke)는 솔딘(Soldin)의 성당목사(Dompfarrer)다. 그는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도시위원회(Stadtrat)에 지명되어 기독교와 나치주의를 결합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저술로 큰 활약을 하였다.⁴⁸⁾

46) Voelkische Beobachter, 10/11. Januar 1932, 2. Beiblatt.

47) Buchheim, *ibid.*, S.74.

1931년 베를린에는 개신교 나치주의자들의 단체가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이 단체는 쿠베에 의해서 지시를 엄격하게 받고 있으며, 정당과는 공개적으로 동일시되지 않았다.⁴⁹⁾ 그 외에 공개적으로 나치주의 목사연맹(Nationalsozialistischer Pfarrerbund)이 결성되어야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비넨케는 호센펠더와 겐지헨(Gensichen) 목사와 함께 1932년 초에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이미 “나치주의 개신교 목사 공동연구 모임”이 있었지만, 다가온 선거를 위해서 이들은 평신도를 포함해서 단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개신교 나치주의자”(Evangelische Nationalsozialisten)라는 표어 아래 교회선거 투쟁을 시작하였다. 선거 선전에서 이들은 종교적 관심을 거의 채택하지 못하고, 독일적 그리스도인 신앙의 존재에 공헌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에 적합한 정치적 활동에 치중하였다.⁵⁰⁾

이 조직의 최고의 관점은 유대-맑스주의적인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신 거절, 이들 정신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성의 극복, 종교에 적대적이고 국민에 적대적인 맑스주의와 기독교-사회적인 추종자들의 게으름에 대한 항의, 법률의 속박, 공무원의 양심에 재갈물리기, 영 계획(Young Plan) 그리고 범 유럽 주의에 대한 저항하는 것 등이다. 본래의 민족적 종교적 요구인 일종의 기독교적인 것 혹은 구약성서의 거절 등은 정당의 정치적 관심 때문에 후퇴하였다.⁵¹⁾

같은 시기에 아마도 정당의 제국지도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회 정치적으로 비슷한 여러 단체들, 즉 독일적 교회(Deutschkirchler), 그리스도교적-독일인(christlich-Deutschen) 그리고 튀링어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의

48) Ibid..

49) Ibid., S.75.

50) Buchheim, ibid., S.76; Der Religiöse Sozialist, Nr.10, 14Jg.1932, S.37.

51) Buchheim, ibid., S.77.

결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개신교 나치주의자”의 이름을 없애라고 명령하였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중립적인 지침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지시에 의해서 제국조직 지도자였던 스트라썬가 이 운동을 독일적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으로 하였고 튀링엔의 중재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 이름은 나치주의자가 아닌 지지자를 얻는데 장점이 있었다.⁵²⁾

1932년 4월 이 운동의 지도는 1929년 이래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원인 된 호센펠더가 실질적으로 하였다. 그는 나중에 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회원들을 얻는데 크게 성공하였다.⁵³⁾

호센펠더는 독일적 그리스도인 신앙운동의 방향지침을 10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삶의 고백으로써의 운동이며, 종족과 민족에 부응하는 교회제도가 필요하다. 2) 강력한 추동력을 가진 제국교회가 요구된다. 3) 신에 의해 축복된 지도자와 거기에 복종하는 민족교회가 필요하다. 4) 적극적 기독교가 중요하다. 5) 교회는 독일적 정서를 강화해야 한다. 6) 교회는 맑스주의와 사회적 기독교에 투쟁해야 한다. 7) 전도는 종족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8) 올바른 내방전도는 살아있는 행동의 기독교(lebendige Tat-Christentum)에 있다. 9) 유대인의 선교는 금한다. 10) 민족에 뿌리를 두고 세계시민의 정신을 거절하는 개신교를 추구한다.⁵⁴⁾

그는 1932년 5월 23일 스트라썬에 의해서 개신교 교회선거 투쟁을 위해서 위임받았다. 이 신앙운동은 정당 지도부에 의해서 전 제국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쿠베의 배타적인 기구가 아니었다.⁵⁵⁾

52) Ibid., S.78.

53) Wieneke, ibid., S.13.

54) Joachim Hossenfelder, "Rechtlinien der Glaubensbewegung 'Deutsche Christen'", in: *Unser Kampf*, Berlin 1933, S.6-7.

55) Buchheim, ibid., S.78.

이 운동은 6월 6일에 정당에 의해서 완전한 공적인 조직이 되었으며, 그들의 방향을 “교회의 갱신에 대한 목적과 길”(Wege und Ziele zu einer Neuordnung der Kirche)로 정하였다. 선거투쟁에서 신학적인 문제는 부수적이었고, 주된 선동은 적극적 기독교의 전파, 맑스주의와 유대주의, 세계시민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투쟁, 종족의 순수성 유지와 백성의 변질로부터의 보호 등이었다. 그들은 정당이 교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것은 1932년의 나치주의자들의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이들의 선동은 성공하였으며, 1932년 11월 선거에서 구프로이센 연합 지역은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은 1/3을 얻었다.⁵⁶⁾

6. 교회에 대한 히틀러의 입장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은 자신의 종족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전제들을 보여준다. 그 역시 역사를 종족간의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게르만의 문화 창조에 대한 희생의지는 유대인의 희생의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유대교는 종교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세계 지배를 감추려는 수단일 뿐이다. 그는 맑스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두 다 유대인들의 세계모반으로 이해한다.⁵⁷⁾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상반된 역할을 하였는데, 한편에서는 나치주의 안에서 민족주의적 이단자(voelkische Sektierer)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 그러나 기독교적인 교리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고착된 토대 위에 세워진 정치적 선동과 잘 비교되어, 책임감 있는 성격을 갖는 교회적인 도그마가 정당에 좋은 모범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⁵⁸⁾

56) Wieneke, *ibid.*, S.16.

57) Adolf Hitler, *Mein Kampf*, 598/602. Aufl., Muenchen 1941, S.37-357.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선교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저자가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의미하게 작용하며, 또한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방해한다, 즉 먼저 사탄의 성경(Satansbibel)이라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논쟁되지 않고 정당과 여론에서 히틀러의 말로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 말을 독일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초기에는 그 당시 뮌헨에서 히틀러의 후원자였던 민족주의 작가인 엑카르트(Dietrich Eckart)의 표현으로 설명하였다.⁵⁹⁾

기독교 교회에 대한 히틀러의 관계는 종교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관계와 일치한다. 그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기독교 교파들 사이의 대립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가하는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을 파악할 카테고리도 결핍되어 있었다.⁶⁰⁾

교회물음에 대한 히틀러의 모든 표현들은 단지 전략적이고 비종교적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반종교적이다.⁶¹⁾ 그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종교에 대해서 오해만을 나타낼 뿐이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정치적 관계의 안정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⁶²⁾

히틀러가 제국수상이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1933년 3월 23일 그는 제국의회에서 나치주의자들과 독일적 민족주의자들(Deutschnationalen)에 의해서 제안된 전권위임법에 관해서 말하면서, “민족적 정부”의 비혁명적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 기회에 그는 정부와 기독교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8) Meier, *Kreuz und Hakenkreuz*, S.14.

59) Meier, *Kirchenkampf*, Bd.I, S.32.

60) Buchheim, *ibid.*, S.79.

61) Hitler, *ibid.*, S.379-80.

62) *Ibid.*, 416f.

“정부는 실질적으로 깊고, 내적인 종교성을 위한 전제들을 만들어 내고 안전하게 한다... 민족적인 정부는 두 교파에서 우리 민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본다...민족 정부는 학교와 교육에서 기독교적인 교파와 영향력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돌봄은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공동의 삶에 해당한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투쟁은 실제적인 국민공동체의 건설은 기독교적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독일민족의 이해에 봉사한다.”⁶³⁾

히틀러에게 1933년 교회의 문제는 국민지도(Volksfuehrung)의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지도가 새로운 국가 안에서 정당의 몫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당에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독자성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많은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민족교회”의 형식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⁶⁴⁾

그러나 독일적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더 이상 텅 빈 기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민족을 위한 힘의 원천이, 국민이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는 토양이 되고자 하였다. 히틀러가 그의 권력 초기부터 교회의 파멸을 면밀하게 세워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가 기독교적인 교회를, 그 자신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 정당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인식했다면, 물론 그는 첫날부터 적대관계를 가졌어야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교회를 종교적 필요에 대한 단체로 여겼으며, 기독교적 신앙을 구체적으로 시대에 뒤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코 교회에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교회를 다른 단체들, 직업단체 그리고 정치조직처럼 통제하고 교회를 국민지도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기구에서 국가지도의 단순하고 수동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⁶⁵⁾

63) Buchheim, *ibid.*, S.80.

64) *Ibid.*, S.82.

하지만 히틀러는 1933년에 교회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히려 교회를 그가 있던 그대로 제국 구조 안에 끼어 넣고 나중에 구조와 내용을 점차 변화시키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독일적 그리스도인을 교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으나, 독일적 그리스도인에게 민족교회(이 교회 안에 백성을 영적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를 만드는 계획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가교회(국가의 지도 기구로써)를 형성하고자 하였다.⁶⁵⁾

일단 그가 교회라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의 무관심은 적대감으로 변하였다. 그 다음 교회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미해결의 연기된 문제가 되었다. 히틀러는 교회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시행하였다. 그 게릴라전에서 그는 점점 대담해지고 무모해졌다. 그러나 그는 결코 "최종해결(Endloesung)"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다.⁶⁷⁾

반면에 개신교는 국민교회의 길도 국가교회의 길도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적 그리스도인과 히틀러에 똑같이 방어해야 했다. 나치주의자 운동 내부 자체에서도 국민교회와 국가교회의 대안이 비교적 중요한 문제였다. 교회 정치적 차이가 나치주의자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⁶⁸⁾

II. 나가는 말

시대의 전환기에서 기독교 교회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한 시대의 공간 속에

65) Ibid., S.83.

66) Ibid., S.84.

67) Ibid.

68) Ibid.

서 존재하는 신앙인에게 굳건한 신앙 위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 넓은 정치적 식견과 큰 책임 그리고 담대한 결단력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더욱이 나치주의자들의 세계 평화주의적인 가치 질서에 대한 저항,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종족 우상적인 가치관 등 반기독교적인 성격과 위험성 등은 기독교와 교회에 큰 결단이 요구된 시기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시민 계층에 기초한 독일 개신교는 나치주의자들의 선동에 자기 시대의 소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치주의자에 대한 기대와 환상 때문에 이들의 지지 세력이 되었다.

K C I

참고문헌

- Adolf Hitler. Mein Kampf. 598/602. Aufl. Muenchen 1941.
- Alfred Rosenberg. Der Mythus des 20.Jahrhunderts. 17-20. Aufl. Muenchen 1934.
- Ernst Deuerlein. Der Aufstieg der NSDAP in Augenzeugenberichten. Duesseldorf 1968.
- Friedrich Wieneke. Deutsche Theologie im Umriss. Soldin 1933.
- Gerda Soecknick. Religioeser Sozialismus der neueren Zeit. Jena 1926.
- Gottfried Feder. Das Programm des NSDAP und seine weltanschaulichen Grundgedanken. 25-40. Aufl. Muenchen 1931.
- Guenther van Norden. Der deutsche Protestantismus im Jahr der nationalistischen Machtergreifung. Guetersloh 1979.
- Hans Buchheim. Glaubenskrise im Dritten Reich. Stuttgart 1953.
- Helga Grebing. Der Nationalismus-Ursprung und Wesen. Muenchen 1959.
- Jean F. Neurohr. Der Mythos vom Dritten Reich. Stuttgart 1957.
- Joachim Hossenfelder. "Rechtlinien der Glaubensbewegung 'Deutsche Christen'", in: Unser Kampf. Berlin 1933.
- Jochen-Christopf Kaiser. Arbeiterbewegung und organisierte Religionskritik. Stuttgart 1981.
- Karl-Wilhelm Dahm. Pfarrer und Politik, Soziale Position und politische Mentaitaet des deutschen evangelischen Pfarrerstandes zwischen 1918 und 1933. Koeln 1965.
- Kurt Meier. Die Deutsche Christen, Halle 1965.
- ders. Kreuz und Hakenkreuz. Muenchen(dtv wissenschaft) 1992.
- ders. Kirchenkampf. Bd.I/II/III. Halle u. Goettingen 1976-84.
- Kurt Nowak. Evangelische Kirche und Weimarer Republik. Goettingen 1988.
- ders,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Deutschlands. Muenchen 1995.
- Max Buchner(Hg.). im Nachwort zu Eberhard Schlund, Christentum, Kirche und Nationalismus. in: Gelbe Hefte 2(1932)

Peter Manstein. Die Mitglieder und Waehler der NSDAP 1919-1933. Frankfurt a.M. 1990.

Der Religiöse Sozialist. Nr.10, 14Jg.1932.

Voelkischer Beobachter. 10/11. Januar 1932, 2. Beiblatt.

Voelkischer Beobachter. 8. November 1932.

Walter Grundmann. Gott und Nation. Berlin 1933.

K C I